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 효과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김현미

2023년 6월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 효과

지도교수 서 명 석
지도교수 김 종 우

김 현 미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김현미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김 민 호 _____ (印)

위 원 _____ 김 종 우 _____ (印)

위 원 _____ 서 명 석 _____ (印)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23년 6월

The Effec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 'Correctional and Treatment
Programs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s'

Hyun-Mee Kim

(Supervised by Professor Myoung-Seok Seo, Chong-Wo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Master of
Psychotherapy]

2023.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Myoung-Seok Seo, Prof. of Psychotherapy
.....
.....
.....

(Name and signature)

.....
Date

Thesis director, Chong-Woo Kim, Prof. of Psychotherapy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용어의 정리	4
II. 이론적 배경	6
1. 가정폭력 개념 및 현황	6
2. 가정폭력 원인에 관한 이론	14
3.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18
4. 선행연구 고찰	19
III. 연구방법	22
1. 연구설계	22
2. 연구절차	24
3. 연구도구	26
4.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29

IV. 연구결과 및 분석	30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0
2.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31
3. 가정폭력행위자의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의 영향	34
4. 성별에 따른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의 영향	37
V. 결론 및 제언	40
1. 결론 및 논의	40
2. 제한점 및 제언	42
참고문헌	44
ABSTRACT	49
부록	51
<부록 1> 프로그램 사전·사후 설문지	51
<부록 2> 회기별 프로그램 주제와 목표, 활동내용	53

표 목차

<표 II-1> 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피해 경험률	8
<표 II-2> 가정폭력범죄 검거인원수 및 범죄율(2017년~2021년)	9
<표 II-3> 가정폭력 범죄자의 연령별 구성 비율(2017년~2021년)	9
<표 II-4>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10
<표 II-5> 지난 1년간 배우자의 폭력으로 신체적 상처(부상)를 입은 경험	11
<표 II-6> 지난 1년간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비율	11
<표 II-7> 지난 1년간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경제활동 영향	12
<표 II-8> 가정폭력 상담 건수	12
<표 II-9>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자에 대한 조치(2017년~2021년)	13
<표 III-1> 연구설계	22
<표 III-2>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일정표	24
<표 III-3> 전문 강사 자격 기준	25
<표 III-4> 척도별 신뢰도	28
<표 III-5>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활동내용	29
<표 IV-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0
<표 IV-2>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31
<표 IV-3>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의 영향(참여 전) ..	35
<표 IV-4>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의 영향(참여 후) ..	36
<표 IV-5> 남성 가정폭력행위자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38
<표 IV-6> 여성 가정폭력행위자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39

그림 목차

[그림 III-1] 연구 모형	23
[그림 IV-1] 부부갈등의 사전·사후 변화	32
[그림 IV-2] 기능적 의사소통의 사전·사후 변화	32
[그림 IV-3]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사전·사후 변화	33
[그림 IV-4] 심리상태의 사전·사후 변화	33
[그림 IV-5] 결혼생활의 사전·사후 변화	34

국 문 초 록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 효과

김 현 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서 명 석

지도교수 김 중 우

이 연구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2022년 J보호관찰소로부터 E상담소에 위탁받은 수강 명령 대상자이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운영자가 안내하였고, 2022년 10회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E상담소에서 진행한 2022년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설문지를 제공받았다. 프로그램 참여자 중 40시간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 91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부부갈등 척도, 의사소통 척도, 심리상태 척도, 결혼생활 척도이다. 연구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전, 후에 각각 사전 설문지와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 전·후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 전·후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 결혼생활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 행동 교정에 대한 연구자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 결혼생활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유연근무제가 증가하고, 학교 수업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가정 내 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경찰청과 국회입법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임시조치 1~3호인 접근금지 청구는 6,697건으로 2020년(4,003건)에 비해 6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기간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는 2,567건에서 3,864건으로 50%나 많아졌다. 이는 가정폭력위험 수위가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고건 중 2019년 7월 한 달 동안 검찰청으로 넘겨진 3,195건의 수사결과를 모두 모아 ‘폭력피해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부부이며 함께 살고 있을 때’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81%), 별거 중일 때는 상해 이상 중한 폭력피해가 다소 높게 발생하는 것(5% 증가)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20).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위력을 통해 자기의 뜻대로 복종하게 하려는 욕구를 가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빠져나오려고 할 때 심각한 폭력이 발생하였다. 즉, ‘이혼 및 별거 요구’와 종속 관계를 의심하는 ‘외도의심’의 경우 가해자의 흥기사용으로 인한 상해·폭행 등 중대한 수준의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각한 정도의 가정폭력은 지배와 통제 욕구를 지닌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빠져나오려고 하면서 발생한 결과라는 미국 분석사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권력·통제 수단이 가정폭력이다’, 美 텍사스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왜 가정폭력 피해자는 떠나지 않을까(TED, 레슬리 모건 스타이너 2012)’ 와도 일치한다(경찰청, 202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전반적으로 낮게(4점 척도 평균 1.8점) 나타났으나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일로 보고 피해자에

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2016년 조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4점 척도 평균 3.4~3.6점,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 및 ‘가해자에게 강한 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 역시 평균 3.6점으로 3년 전 조사와 비슷하였다.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 ‘지역공동체, 직장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요구도 3.5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 평등 교육’, ‘가정폭력의 재발 가정에 대한 경찰의 연속적 사례관리’, ‘상담 및 교육 등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 역시 각각 3.5점으로 높게 나타나 폭력 예방 교육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 강화의 요구가 높았다(여성가족부, 2019).

현재 여성가족부에 접수된 200여 개의 상담소 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담소는 2021년 1월 기준 128개 기관이다. 이곳에서의 지원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서비스를 지원받은 피해자 23만 4,688건 중 심리·정서적 지원서비스가 16만 5,567건을 차지하였으며 이것은 전년보다 19.6%가 증가한 것이다. 행위자를 위한 지원의 경우, 2019년 8만 9,898건으로 전년 대비 8,76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이와 같은 심리·정서 지원의 증가는 제주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이 2020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사건이 2020년 822건으로 2018년 677건과 비교해 20% 이상 늘었으며, 아동학대는 156건으로 2년 전보다 60% 이상 증가했다(뉴스핌, 2022. 2. 11.). 또한, 2021년 12월 29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정책 방향’ 이슈브리핑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의 상담통계를 보면 2018년 7,430건, 2019년 7,651건, 2020년 8,087건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이화진, 2021).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뿐 아니라 피해자 등 가족 구성원 안전 확보를 위해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원자(2010), 장영순(2014), 전숙이(2017), 양혜경·유해선·서보람(2015), 장인숙·허인영(2018) 등의 선행연구에서도 가정폭력행위자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고는 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가정폭력 신고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부관계에서 폭력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행위자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사업을 지원하고 있을 뿐, 지금까지 관련 사업 현황 및 효과성 분석 등 연구와 자료 분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라일보, 2021). 또한, 제주지역 내에서도 20여 년간 가정폭력행위자들을 대상으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관할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한 후 부부갈등 및 의사소통, 심리상태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이 효과적인가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와 행위자들의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는 결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성별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는 결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용어의 정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는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 결혼생활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범죄를 행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으로 공범을 말한다. 가정폭력범죄는 동법 제2조 제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동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의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족에게 폭력 행위를 가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수강명령을 받아 J 보호관찰소로부터 E상담소에서 실시하는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를 의미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인지행동 이론과 여성주의 이론,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한다. 또한, 가정폭력행위자의 행동 교정을 통하여 폭력의 재발 방지 및 근절로 행복한 가정을 조성하여 가정의 해체를 막는데 목적이 있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는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처분자,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의뢰자, 상담과정에서 권유한 자로서 가정폭력 교정·치료가 필요한 자가 대상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처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정폭력 수강명령은 E상담소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로 일정 시간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3) 부부갈등

이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부부의 성격, 의사소통, 성적 문제, 경제문제, 직업 및 자녀 문제, 친인척 문제로 부부관계에서의 심각성 정도를 의미한다.

4)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람들 간에 생각이나 감정 등을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부부 각각의 의견이나 주장, 자신의 감정과 기분 등에 대해 상대 배우자에게 얼마나 솔직하게 표현하고 수용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5) 심리상태

심리상태란 정신이나 의식이 놓인 상태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의 심리상태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안녕감을 의미한다.

6) 결혼생활

결혼생활이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생활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의 결혼생활은 현재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감 및 상호신뢰의 정도를 말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 개념 및 현황

가.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에서의 가정폭력의 개념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및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과거 배우자, 자신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실지에 있어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었거나 있던 사람, 계부·계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큰어머니와 서자의 관련에 있었거나 있던 사람, 함께 생활하고 있는 친족을 말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 그리고 가정폭력 범법 행위의 유형으로는 상해, 협박, 학대, 폭행, 감금, 유기, 강간 및 간음, 모욕, 명예훼손, 주거침입에 따른 수색, 강요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공갈, 재물손괴 등의 범죄와 그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의 행위 유형을 가정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생활 여건의 관여와 반복되는 행동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는 가정폭력으로 망가진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되돌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을 꾸리며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법제처, <http://www.lae.go.kr>). 이론적 개념으로서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위력 또는 신체적 힘을 사용하여 육체적 폭력이나 정신적인 괴롭힘을 통해 아픔을 주는 행위이다(김은경·김혜정·박소현·유숙영, 2014). 또한, 가족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폭력이 행사된다. 가정폭력은 관습적으로 가족이라는 테두리 내에 묵인되

어 외부의 개입이 어려워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장희숙·명화숙·이서원, 2003a).

이처럼, 가정폭력은 남편이 아내로부터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을 통제하고 행사하는 체계적인 행동 양식의 하나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가정폭력은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해당이 된다. 이때 여성이 남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주된 동기는 남성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와 보복 때문이다(여성가족부, 2015). 가정폭력은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배우자 폭력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자녀폭력(child violence), 자식이 노부모에게 행하는 노인폭력(elder violence), 형제간에서 서로 행하는 형제폭력(sibling violence) 등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폭력의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한미경, 2010).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은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으로 나타난다. 즉 폭력 행동의 주체와 상대가 전부 가족 구성원인 형태의 폭력을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가족체계에서 중심이 되는 부부 하위체계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 폭력에 대한 행위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 가정폭력의 현황

202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른 가정폭력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르면, “여성폭력”이란 남녀에 기반한 부녀자에 대한 폭력으로 육체적·심리적 안전과 안녕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법률에서 정해놓은 것에 따르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도 여성폭력이다. 이 중 가정폭력과 관련된 통계자료는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1) 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피해 경험률

2019년 기준 평생 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피해 경험률은 여성 20.7%, 남성 13.9%이다. 폭력 유형별로 여성은 ‘정서적 폭력’ 17.8%, ‘성적 폭력’ 7.2%, ‘신체적 폭력’ 5.4%, ‘경제적 폭력’ 3.2% 순이고, 남성은 ‘정서적 폭력’ 13.1%, ‘신체적 폭력’ 2.4%, ‘성적 폭력’ 1.3%, ‘경제적 폭력’ 1.2% 순이다 (<표 II-1>). 여성과 남성 모두 정서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 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피해 경험률 (단위: %)

구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여성	5.4	7.2	3.2	17.8
남성	2.4	1.3	1.2	13.1

자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2019, 83쪽.

2) 최근 5년간 가정폭력범죄 검거인원수 및 범죄율

5년간(2017~2021년) 가정폭력범죄 검거인원수 및 범죄율을 살펴보면, 가정폭력범죄 검거인원수는 2017년 45,264명에서 2021년 53,985명으로 8,721명, 19.3%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만 명당 가정폭력범죄 범죄율은 2017년 87.4건에서 2021년 104.5건으로 지난 4년 사이 17.1건, 19.6% 증가하였다. 가정폭력범죄 범죄유형별 구성 비율을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폭행·준속폭행이 5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상해·폭력 행위(19.5%), 재물손괴(9.0%), 협박·준속협박(3.1%)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5년간 가정폭력범죄 유형의 추이를 보면 폭행·준속폭행은 2017년 68.6%에서 2021년 57.9%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협박·준속협박 역시 2017년 5.5%에서 2021년 3.1%로 감소 경향을 보인다. 상해·폭력 행위, 재물손괴는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다(<표 II-2>).

<표 II-2> 가정폭력범죄 검거인원수 및 범죄율(2017년~2021년)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건수 %)

연도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 범죄유형별 비율				
	검거인원수	범죄율	폭행· 준속폭행	협박· 준속협박	상해· 폭력행위	채물손괴	기타
2017	45,264	87.4	68.6	5.5	13.9	6.9	3.9
2018	43,576	84.1	64.4	2.9	18.7	7.0	6.0
2019	59,472	114.7	62.3	3.1	20.2	8.4	5.0
2020	52,431	101.2	60.3	3.0	19.4	9.2	7.1
2021	53,985	104.5	57.9	3.1	19.5	9.0	9.6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각 연도, 원자료를 재구성하여 분석.

3) 가정폭력 범죄자의 연령별 구성 비율

가정폭력 범죄자의 연령은 40대(41~50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0대 비율은 2017년 30.1%에서 2021년 27.8%로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30~50대의 가정폭력 범죄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예전과는 다르게 19~30세와 61세 이상 가정폭력 범죄자는 증가 추세이고, 특히 61세 이상 고령층은 2017년 9.5%였던 비율이 2021년 14.2%로 증가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표 II-3>).

<표 II-3> 가정폭력 범죄자의 연령별 구성 비율(2017년~2021년) (단위: 명, %)

연도	가정폭력 범죄자수	가정폭력 범죄자의 연령별 구성 비율					
		미성년자	19-30세 이하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2017	45,264	1.4	11.0	23.9	31.2	23.0	9.5
2018	43,576	1.4	10.8	23.5	30.1	23.4	11.0
2019	59,472	1.4	10.9	23.6	29.2	22.7	12.2
2020	52,431	1.7	11.1	22.2	28.2	23.3	13.5
2021	53,985	2.0	11.8	21.5	27.8	22.6	14.2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각 연도, 원자료를 재구성하여 분석.

4)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중복응답)를 살펴보면,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이 45.6%이며, 절반 이상은 배우자에게 맞대응하거나(43.1%), 자리를 피하거나(12.5%), 도움을 요청(1.0%)하는 등의 대응 행동을 보였다. 여성은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48.3%로, 남성(40.7%)보다 대응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고, ‘배우자에게 맞대응했다’ 42.8%,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갔다’ 9.8%,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배우자에게 맞대응했다’가 43.6%로 가장 높았고,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40.7%였으며,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갔다’ 17.2%,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0.2%의 순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남성(0.2%)보다 여성(1.5%)이 다소 높았으나 여성과 남성 모두 드문 편으로 조사되었다(<표 II-4>).

<표 II-4>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분석 대상수	154	75	229
무서워서	3.2	2.6	3.0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질 것 같아서	7.3	6.4	7.0
대응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18.5	7.6	14.9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4.6	22.6	10.5
내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1.7	1.7	1.7
배우자이기 때문에	25.3	14.8	21.9
아이들 때문에	6.7	9.4	7.6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7.2	2.2	5.6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11.5	17.0	13.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2.7	15.7	13.7
기타	1.4	-	0.9
계	100.0	100.0	100.0

자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2019, 121쪽. 주: 1순위 응답임.

5)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고통 경험률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로 신체적 상처를 경험한 응답자 비율은 5.9%이며, 여성 7.4%, 남성 3.3%로 여성의 신체적 상처 경험률이 남성보다 높았다(<표 II-5>).

<표 II-5> 지난 1년간 배우자의 폭력으로 신체적 상처(부상)를 입은 경험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수	없음	있음			소계
			1~2회	3~5회	6회 이상	
여성	326	92.6	4.7	1.8	0.9	7.4
남성	183	96.7	3.3	-	-	3.3
전체	509	94.1	4.2	1.1	0.5	5.9

자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2019, 114쪽.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심각 정도는 전체 응답자 평균 1.4점이며, 이는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도 남녀 모두 1.4점으로 동일하였다. 성별 비율로는 여성의 정신적 고통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여성에게서만 나타났고,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 분노’ 여성 18.4%, 남성 14.5%, ‘무력감, 자존감 하락’은 여성 16.0%, 남성 14.1%, ‘계속 당시의 생각이 남’ 여성 14.3%, 남성 9.1%, ‘매사에 우울, 불안’ 여성 10.1%, 남성 6.8%, ‘위협감, 공포심’ 여성 8.4%, 남성 3.8%, ‘죽고 싶다는 생각’ 여성 4.2%, 남성 2.9%로 6개 문항에서 여성의 응답이 더 높았으며, ‘고립감,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는 여성 2.6%, 남성 2.9%로 남성이 다소 높았다(<표 II-6>).

<표 II-6> 지난 1년간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비율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무력감, 자존감 하락	16.0	14.1	15.3
매사에 우울, 불안	10.1	6.8	9.0
위협감, 공포심	8.4	3.8	6.7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 분노	18.4	14.5	16.9
죽고 싶다는 생각	4.2	2.9	3.7
고립감,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2.6	2.9	2.7

자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2019, 117쪽. 주: 정신적 고통 : ‘심각한 편이다’+‘매우 심각하다’ 응답 비율.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으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은 전체 응답자 비율은 8.2%이고 그중 여성 8.6%, 남성 7.7%로 여성이 경제활동에 영향을 경험한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던 응답자를 대상으로, 유형을 살펴본 결과, 업무 능률 하락의 비율이 여성 87.1%, 남성 90.0%로 가장 높았고, 단순한 업무 능력의 감소 외에도 폭력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지속성이 위협을 받거나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7>).

<표 II-7> 지난 1년간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경제활동 영향 (단위: %)

구분	분석대상수	업무 능률 저하	인간관계 문제	휴가·휴직 필요	이직고민	일을 그만둠	구직활동에 어려움
여성	(23)	87.1	28.7	14.2	29.2	15.3	-
남성	(13)	90.0	3.2	-	7.0	10.0	10.0
전체	(36)	88.2	19.3	9.0	21.0	13.3	3.7

자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2019, 119쪽. 주: 중복응답.

6) 가정폭력 상담 건수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2018년 454,623건에서 2019년 525,25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 475,420건으로 감소한 뒤, 2021년 514,006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가정폭력 상담은 대부분 가정폭력피해상담소(2021년 기준 51.9%) 및 여성긴급전화 1366(33.3%)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표 II-8>).

<표 II-8> 가정폭력 상담 건수 (단위: 건)

연도	2018	2019	2020	2021
여성긴급전화 1366	189,057	206,885	180,111	171,352
가정폭력상담소	219,459	238,601	230,578	266,529
성폭력피해상담소	33,529	64,591	49,832	56,391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	985	2,785	9,920
다누리 콜센터	12,578	14,196	12,114	9,814
합계	454,623	525,258	475,420	514,006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실적」,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내부자료(폭력피해이주여성 주요업무 참고자료), 다누리콜센터 「다누리 콜센터1577-1366 이용현황」

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자에 대한 조치

가정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범죄자 중 경찰이 긴급성을 고려해 바로 ‘피해자 등 접근금지’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취한 범죄자의 비율은 2017년 2.6%에서 2021년에는 7.2%로 5년 사이 약 2.8배 증가하였다. 경찰이 검사에게 법원의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한 범죄자의 비율은 2017년 9.8%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1년에 12.4%로 2017년 대비 2.6%p 증가하였고,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가정폭력 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신청한 비율은 각 10% 내외로 낮았다. 그러나 지난 5년 사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신청 비율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긴급임시조치 비율의 증가폭이 임시조치 신청 비율보다 커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이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먼저 긴급임시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신청하는 임시조치에 대해 법원이 인용한 비율은 2017년 74.9%에서 2021년 85.6%로 5년 사이 10.7%p 증가하였고, 경찰이 검사에 신청한 후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에 대해 법원이 인용한 비율은 2017년 88.2%에서 2021년 88.7%로 지난 5년 동안 큰 변화 없이 8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표 II-9>).

<표 II-9>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자에 대한 조치(2017년~2021년) (단위: 명, %)

연도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경찰의 조치		법원의 인용		경찰의 신청		법원의 인용		법원의 인용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2017	1,183	2.6	886	74.9	4,436	9.8	3,911	88.2	890	75.7
2018	1,787	4.1	1,498	83.8	4,833	11.1	4,343	89.9	1,171	78.4
2019	3,447	5.8	2,798	81.2	5,570	9.4	4,798	86.1	1,429	75.0
2020	2,567	4.9	2,063	80.4	4,003	7.6	3,589	89.7	1,171	72.9
2021	3,865	7.2	3,309	85.6	6,704	12.4	5,945	88.7	1,014	75.2

자료: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는 경찰청, 내부자료, 각 연도 /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연도.

주: 피해자 등의 청구건수는 당해 연도에 피해자 및 법률대리인과 검사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건수에서 당해 연도에 처리되지 않은 건수(미제)와 피해자 및 법률대리인이 청구를 취하한 건을 제 한 수치임.

2. 가정폭력 원인에 관한 이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교정·치료 프로그램 실무자 매뉴얼(여성가족부, 2003)을 기초로 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대상자들도 상담소에 위탁되어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한 매뉴얼에 따른 교육을 수강하였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이론으로 인지행동 이론과 여성주의 이론,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하여 가정폭력행위자들의 가정폭력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인지행동 이론

인지행동 이론에서는 성격의 변화보다는 비폭력적인 방법들을 재학습하며 남성의 특권과 폭력을 허용하는 가부장적 사회문화와 남성의 여성에 대한 권위와 통제력 행사를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한다. 또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행동기술의 결여나 문제 극복적인 인지기술의 부족이 폭력 행동과 관계가 된다고 보고, 성 역할을 통한 재사회화나 기술훈련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행위자가 폭력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공격적인 행동에 반하는 기술들을 습득하여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을 이론의 목적으로 삼는데, 이는 목표 중심적이며, 교훈적이고, 직면기법을 선호하는 다소 엄격한 접근법으로 강의, 집단토의, 연습, 역할극, 과제물을 사용하여 전달한다.

이러한 인지행동 이론의 접근은 현재 많은 행위자 교정프로그램에서 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지 행동적 접근은 폭력 행위 그 자체를 문제로 삼고 폭력 행동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명확하고 구조적이며 평가가 쉽기 때문이다. 또한, 상담 방법이 구체적이고 기법 위주로 참가자들의 저항이 적고 폭력이 학습된 행동이라고 개념화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가 자신의 행동 변화에 희망을 쉽게 가질 수 있다. 제한된 기간 내에 바로 실천할 수 있고 단기간에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어 대부분의 행위자 교정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다(신보미, 2005).

인지행동 이론의 보완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성격 발달상의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프로그램이 너무 교육적인 면을 강조하면 치료적 도구로서 집단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또한, 성차별적인 문화권에서도 폭력적인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이 있음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위자와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통합을 추구하는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개입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채규만, 2002).

인지행동 이론은 폭력이 학습된 행동이며 비폭력 역시 학습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사회학습 이론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폭력적 행동의 학습 자체보다는 이를 지지하는 비합리적 사고와 신념의 내면화가 가정폭력을 발생시킨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남자는 위력에 대한 믿음을 내면화하면서 폭력 행동을 학습하고, 여자는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신념을 정신적·심리적으로 깊이 내면화하면서 무기력함을 학습한다.

인지행동 이론에 기초한 개입은 폭력 관계를 유지하는 역기능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Adams(1988)에 의하면 실천적 방법은 고도로 구조화된 개입이 가능하며 교육적인 특성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내담자의 자기 노출로 인한 위험성과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아내에 대한 폭력은 남편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받는다(강은희, 2008에서 재인용).

인지행동 이론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첫째, 관찰과 강화에 의한 학습된 행동이다. 둘째, 목적을 갖는 선택된 행위이다. 셋째, 여성에게 권력과 통제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다. 넷째, 의지, 정서, 행동, 생리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따라서 폭력은 학습을 통한 인지의 변화로 교정이 된다. 이는 폭력 행동 자체가 표적이 되어야 하고 폭력의 책임은 전적으로 행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2) 사회학습 이론

Bandura(1973)의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폭력 행동을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른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모방을 통한 학습의 산물로 보는 관점이다(장영순, 2014에서 재인용). 이는 폭력 행동이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학습된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외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가 상대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며 폭력 행동이 효과적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경험한다.

김재엽 등(2007)의 연구에서 사범체계에 맡겨진 가정폭력행위자의 약 80%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Kaufman과 Ziger(1989)의 연구에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의 약 30% 정도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삼연, 2013에서 재인용). Gelles(1976)는 학대가정과 비 학대가정으로 구분하여 폭력 노출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학대가정이 폭력에 대한 규범, 가치, 기술 등을 학습하는 훈련장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객관적으로 가족이라는 집단은 성별 또는 세대별로 이질적인 집단이 모인 성원들의 구성으로 남녀 간의 갈등과 세대 간 반목의 일차적 현장으로 볼 수 있다.

Herrenkohl(1981)에 의하면 훈육의 한 방법으로 체벌과 같은 폭력적인 처벌 방법을 사용하는 가족은 체벌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은 일반적인 가족들보다 폭력과 갈등에 주기적으로 노출되어 폭력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가족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 즉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형제·자매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이에, 사회학습 이론의 개입 방향은 역기능적으로 학습된 폭력 행동에 대해 인식하고 잘못된 폭력 행동을 비폭력 행동으로 재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여성주의 이론

근대사회에서 남성은 부양자로, 여성은 현모양처로 이원화된 성별 분리가 강화되어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접어들며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이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도 가부장제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구조는 여성은 하찮은 부분을 담당하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여성의 삶과 경험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있다(조흥식 외, 2020).

여성주의 이론에서는 가정폭력의 원인을 가부장적 사회, 전통, 문화 및 성차별적 불평등이 기반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가부장적 사회와 여성을 보통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는 권위주의적인 사회의 성적 불평등한 권력이 가정폭력의 원인이라는 것이다(김원자, 2010). Martin(1998)의 연구에서 성적 불평등이 팽배한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아내 구타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 같은 남녀관계는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에서 제도화되어 이러한 구조가 자연스럽고 도덕적이며 신성한 것처럼 만드는 신념체계에 의해 지지 되어왔다(강은희, 2008에서 재인용).

여성주의 관점에 의하면 남성들은 여성에게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남성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가정폭력을 여성에게 행사하는 남성 권력의 한 형태라 생각한다. 이러한 남성의 사고는 결혼에 대해 아내와 자녀에게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내에 대한 자신의 특권과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한다(박소현, 2013). Adams(1988)에 의하면 여성주의 접근법은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이해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동일한 사회문화권에서 자란 남성이 모두 다르게 선택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변화의 핵심이 행위자의 성차별적 태도와 통제 의도나 행위자들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개입의 방향을 잃을 수 있다(양영재, 2021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보호처분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행위자들로 하여금 저항을 일으키고 있으며 여성주의 접근은 사회구조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행위자에 대한 개입이 명확하지 않다.

3.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03년 표준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여 같은 해 11월 장희숙·명화숙·이서원(2003b)에 의하여 개발이 완료되었다.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폭력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폭력이란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가하는 심리적, 성적, 신체적 학대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상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그의 심리적, 성적 폭력까지 멈추게 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관계개선보다는 행위자의 폭력행동 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폭력 중단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행위자 프로그램은 개별상담 또는 부부상담 보다는 집단형태의 접근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고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은 피해자뿐 아니라 폭력 행위의 주범인 행위자에게도 전문적인 간여를 해야 한다. 행위자의 폭력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은 여성들의 인생에서 폭력을 쫓아내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정폭력특례법』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행위자에 대해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처벌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외국의 앞선 다양한 연구들은 사법부의 지휘 아래 행위자 상담을 운영하는 대책이 폭력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수강명령이나 상담명령을 수행함으로써 행위자에게 사법부와 연합한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행위자 프로그램은 여성주의와 인지행동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폭력을 학습된 행동으로 이해하므로 성격의 개조보다는 비폭력적인 방법들을 재학습하며 폭력 행위를 수정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남성의 특권과 폭력을 허용하는 가부장적 사회문화와 남성의 여성에 대한 권위와 통제력 행사를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면서도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행동기술의 결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인지기술의 부족이 폭력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집단교육은 성 역할 재사회화와 기술훈련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4. 선행연구 고찰

1) 부부갈등과 결혼생활

과거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는 가정생활에서 부부갈등은 피해야 하는 것이고 나쁘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부부갈등은 부부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성격 차이, 의사소통, 자녀교육, 가사분담 문제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부부갈등의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은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 자체보다는 주관적 불일치 경험이 부부갈등 수준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김수환, 2017).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을 피해가려고 노력하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혼생활은 두 사람이 부부라는 단위를 이룸으로써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결정하고 해결한다. 이때 부부 각자의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김의진, 2014). 부부갈등은 어느 정도 타협과 조절로써 부부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서로의 경계를 넘을 때는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서로에게 침해할 수도 있다(강신성, 2014).

안용주(2021)의 부부갈등과 결혼생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내와 남편은 부부갈등을 알아차리는 정도가 다르며 서로의 갈등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내와 남편의 부부갈등에 대한 알아차림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아내가 남편보다 부부갈등에 대해 더 높게 알아차렸다. 남편은 아내보다 애정과 관심을 더 많이 원하고 있어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 된다고 하였다.

박소현(2022)의 연구에 의하면 아내와 남편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아내와 남편이 부부갈등에 대해 많이 인식할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부는 성장 과정에 대한 경험이 서로 다르고 각자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 달라 자연적으로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조유리·김경신, 2000).

2) 심리상태와 결혼생활

심리상태는 현재 자신에게 놓여있는 상황에 대한 심리적 상황을 나타내는 변인이다. 심리적 건강은 행복감이나 심리적 안녕과 같은 긍정적 측면과 우울이나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까지 포괄한다(차승은, 2005). 우울은 개인의 삶 속에서 신체 불편감, 절망감, 불안정감, 슬픔, 회피, 식욕 저하 및 체중 감소, 주의집중장애, 활동이나 삶에서의 흥미 상실, 활력 상실, 자기비판, 의사결정의 어려움, 절망감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을 발생시켜 현실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사회생활의 부적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살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과 우울함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심리적 장애라고 할 수 있다(권석만, 2003).

자기복잡성은 개인이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다양하고 분별력 있게 인지적으로 표상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김운주, 한성열, 1993).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알고 있으면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여 심리적 안정과 자기존중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느낀다. 반면, 자신의 다양한 측면을 잘 모르고 있으면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아 정서적 고통과 대처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우울감을 느끼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게 된다(양현지, 김은정, 2016).

Lee(2008)에 의하면 부정적 심리인 우울은 가족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가족 간의 적응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는 가족의 체계적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심리적 고통은 남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남편과의 관계는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양육 행동은 유아의 발달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순환적으로 다시 유아는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켜 부모의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오영주, 2017에서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또는 안정적 심리상태는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3) 의사소통과 결혼생활

부부갈등 시 부부가 사용하는 대처방식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다양한 갈등대처 방식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와 낮은 부부를 비교해 보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절했는지에 따라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결정되는 것이다(신보미, 2005). 부부갈등은 부부 자신들이 신체적 정서적 영역에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부부문제 해결에서 상호 적대적이거나 아내가 요구하는 행동에 대해 남편은 회피적으로 대응하는 부정적 상호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김경미, 2009에서 재인용).

의사소통과 관련한 국내외 대부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ottman(1998)은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특징을 보면,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부관계가 안정적인 부부는 근본적인 차이나 기본적인 욕구와 같이 해결될 수 없는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화하는 방식을 알고 있다. 또한, 부부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서진숙, 2018에서 재인용).

국내에서도 부부의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 행동은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이중선·권정혜, 2002).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방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박영화·고재홍, 2005)와 같은 연구에서도 부부의 자존감이 높고, 일치적인 의사소통방식을 하는 부부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의사소통 효율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부부간의 의사소통 상호작용은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홍신례, 1987).

부부의 친밀감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남편의 과묵함은 의사소통에 대해 단절을 느끼게 하고 아내의 불만을 촉발시킨다. 이는 부부갈등 상황에서 남편의 철수나 회피가 아내와의 의사소통에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한영애, 2020).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부부의 기능적·역기능적 의사소통이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지방법원 제주지원에서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에 의한 수강명령 대상자이며, J보호관찰소로부터 E상담소에 위탁되었다. 2022년에 의뢰된 수강명령 대상자로 5일간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일 내용의 사전·사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 및 사전·사후 설문지를 통하여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였다(<표 Ⅲ-1>).

<표 Ⅲ-1>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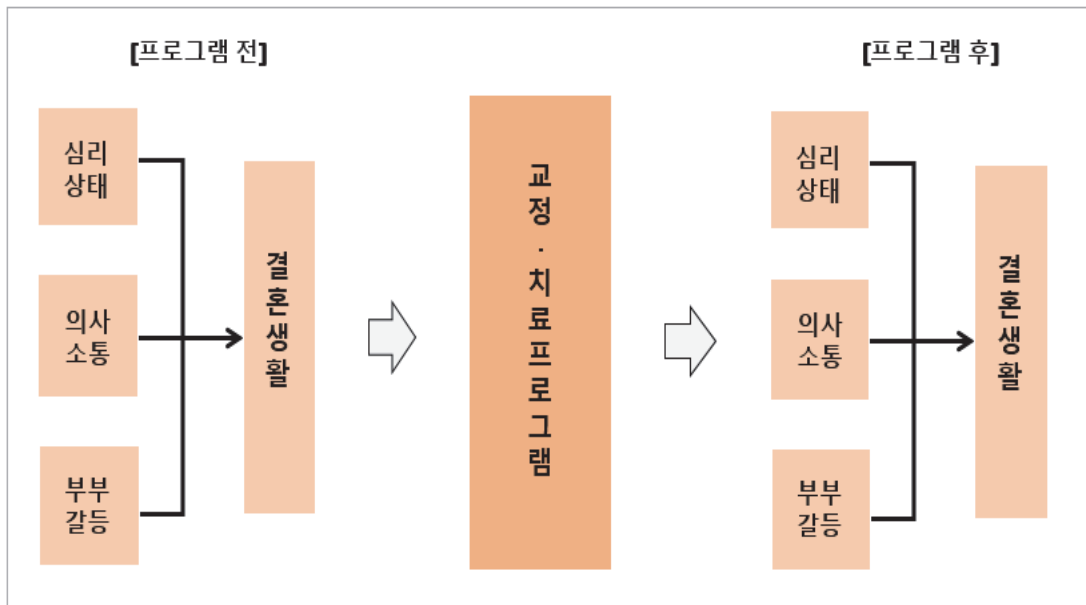
구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Q1	P	Q2

Q1, Q2: 부부갈등 척도, 의사소통 척도, 심리상태 척도, 결혼생활 척도

P: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2) 연구 모형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Ⅲ-1]).



[그림 Ⅲ-1] 연구 모형

3) 연구대상

이 연구대상은 제주지방법원 제주지원에서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에 의한 수감명령 대상자이다. 2022년 J보호관찰소로부터 E상담소에 위탁되었다. 선정기준은 위탁 수감명령 대상자 중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로 하였으며, 최종 분석대상은 91명이다.

2. 연구절차

이 연구의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J보호관찰소로부터 E상담소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위탁 의뢰된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참여자 동의서와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5일간 하루 8시간씩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40시간 교육 후 수강명령 대상자는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022년 10차례 프로그램 운영 후 수집된 대상자의 자료들 중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 91건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여가부의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침』에서 정한 표준 운영모델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0차례 운영되었고, E상담소 집단교육실에서 진행되었다. 진행자는 여가부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한 전문 강사들이 진행자로 참석하였다. 2022년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표 III-2>와 같고 전문 강사 자격 기준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2>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일정표

회차	프 로 그 램 운 영 기 간	선정인원
1차	2022. 01. 17 ~ 2022. 01. 22	14명
2차	2022. 02. 14 ~ 2022. 02. 18	12명
3차	2022. 03. 14 ~ 2022. 03. 18	9명
4차	2022. 04. 11 ~ 2022. 04. 15	17명
5차	2022. 05. 09 ~ 2022. 05. 13	3명
6차	2022. 06. 13 ~ 2022. 06. 17	13명
7차	2022. 08. 22 ~ 2022. 08. 26	5명
8차	2022. 09. 19 ~ 2022. 09. 23	2명
9차	2022. 10. 31 ~ 2022. 11. 04	9명
10차	2022. 12. 19 ~ 2022. 12. 23	7명

<표 III-3> 전문 강사 자격 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전문강사(I)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면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여성부 시행 가정 폭력행위자 운영자과정교육이수자 2. 알코올전문상담 경력 1년 이상자 (알코올 상담의 경우) 3. 아동미술치료등 아동심리치료·상담 1년 이상 경력자 (아동상담의 경우) 4.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로서 대면상담 경력 1년 이상인 자 	*상담경력은 가정폭력관련 상담임.
전문강사(II)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면상담경력 5년 이상인 자 2. 행위자 집단상담 경력 3년 이상인 자 3. 알코올전문상담 경력 3년 이상자 (알코올 상담의 경우) 4. 아동미술치료 등 아동심리치료·상담 3년 이상 경력자 (아동상담의 경우) 5.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집단상담 경력 2년 이상인 자 	*상담경력은 가정폭력관련 상담임.
전문강사(III)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 학위 이상으로 행위자 대면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2. 대면상담경력 10년 이상으로,5년 이상의 집단상담 경력을 갖춘 자 이상인 자 3. 관련분야 의사 자격증 소지자로 대면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상담경력은 가정폭력관련 상담임.

주: 1.대면상담경력 :주3회 이상,1일 4시간이상 대면상담 경력, 2.상담경력 :주1회 이상, 1일 2시간 이상 전화·면접 상담경력, 3.집단상담경력 :5인 이상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연간 10회 이상 상담한 경력 4.관련분야 :정신,심리,사회복지,사회사업,여성학,법학 및 교정학 등

3.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 그리고 결혼생활 척도이며, 모두 자기보고식 조사(self-reported survey)이다.

1) 부부갈등 척도

부부갈등 척도는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성격차이로 인한 문제’,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한 문제’, ‘생활철학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한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성생활의 문제’,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외도로 인한 문제’, ‘애정이나 관심 부족의 문제’, ‘가정의 재정관리 문제’, ‘직업과 관련된 문제’, ‘자녀문제’, ‘친인척으로 인한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전혀 심각하지 않았다)~5점(매우 심각하였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점수 범위는 11점~55점이고, 이 척도의 사전·사후 신뢰도는 모두 Cronbach’s $\alpha = .91$ 로 동일하게 나타났다(<표 III-4>).

2) 의사소통 척도

의사소통에 대한 척도는 긍정적 내용 4문항과 부정적 내용 5문항 등 두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기능적 의사소통 척도는 ‘나는 배우자에게 마음에 품고 있는 감정과 기분을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 ‘나는 배우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질문한다’, ‘나는 배우자가 이야기할 때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 ‘나는 배우자의 의견이나 기분을 존중한다’이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척도는 ‘나는 배우자의 주장이 옳아도 내 주장을 고집한다’, ‘나는 배우자의 장점보다 단점을 꼬집는다’, ‘나는 배우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귀찮다’, ‘나는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다’, ‘나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배우자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이다. 기능적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점수의 범위는 4점~20점이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며, 점수 범위는 5점~25점이다. 기능적 의사소통 척도의 사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사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이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척도의 사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 사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이다(<표 III-4>).

3) 심리상태 척도

심리상태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곤 한다', '내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다', '편안하게 잠을 자기 힘들 때가 있다', '무슨 일을 하든 전념할 수 없다', '모든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 죄의식을 느낀다', '매사에 과민하게 반응한다', '죽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식욕이 떨어진다', '예전에 비해 말수가 줄었다'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심리상태가 긍정적(안정적)임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점수 범위는 10점~50점이고, 이 척도의 사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고, 사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로 나타났다(<표 III-4>).

4) 결혼생활 척도

결혼생활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나의 결혼생활은 다른 어떤 일보다 나 자신에게 만족감을 준다', '나의 결혼생활은 행복하다', '나의 결혼생활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나는 결혼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한다', '나는 배우자를 신뢰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점수 범위는 6점~35점이고, 이 척도의 사전·사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로 동일하게 나타났다(<표 III-4>).

<표 III-4> 척도별 신뢰도

구 분	설문문항	신뢰도	
		사전	사후
부부갈등	1-11	.91	.91
기능적 의사소통	1-4	.83	.82
역기능적 의사소통	5-9	.77	.80
심리상태	1-10	.93	.94
결혼생활	1-6	.92	.92

5) 자료 분석

연구자는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의 자료들을 SPSS 2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 전, 후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성별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 전, 후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인지행동 이론과 여성주의 이론,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하여 가정폭력행위자들의 행동 교정 및 치료를 목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매뉴얼(여성가족부, 2003)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활동내용은 <표 III-5>와 같다.

<표 III-5>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활동내용

	시 간	프 로 그 램 명
1일차	10:00~11:00	● 개시교육 -사전설문지 및 프로그램 일정·규칙 안내
	11:00~12:00	● 관계형성 및 집단목표 - 오리엔테이션, 별칭짓기 -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은?
	13:00~18:00	● 나는 누구일까요?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니어그램)
2일차	10:00~12:00	● 가정폭력/아동폭력 개념 및 처리절차
	13:00~15:00	● 자기탐색 I - 어떻게 생각하나요?(나+타인=우리)
	15:00~18:00	● 자기탐색 II - 나의 삶의 에너지는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을까?
3일차	10:00~12:00	●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 알코올이 나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13:00~15:00	● 자기탐색 III - 스트레스 상황에서 당신은 화를 어떻게 조절하나요?
	15:00~18:00	● 의사소통 - 의사소통의 패턴 / 대처방식의 닮은점, 다른점
4일차	10:00~12:00	● 생애발달과정 - 현 삶 안에서 나의 현재와 미래
	13:00~15:00	● 부부관계탐색 - 우리 부부는 잘 살고 있는 걸까?
	15:00~18:00	● 생명존중(자살예방) -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명의 빛을 밝힙니다
5일차	10:00~12:00	● 가정에서 시작되는 양성평등 - 내가 생각하는 양성평등이란? - 편견을 버리면 평등해져요
	13:00~16:00	● 가족영화상영 - 가족 안에서 패턴, 세대간 전이, 가족의 소중함
	16:00~17:00	● 인생설계 : 나의 삶의 로드맵, Life Plan세우기 -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삶 - 자신의 삶에 모습에 따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17:00~18:00	● 종결 - 사후설문지 및 소감문작성, 평가지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IV-1>과 같다. 연구대상자 중 남성은 63명으로 전체의 69.2%이고, 여성은 28명으로 전체의 30.8%이다. 연령은 40대가 36명으로 전체의 39.6%로 가장 많고, 50대가 23명으로 25.3%, 30대 이하가 17명으로 18.7%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이 15명으로 16.6%이다. 학력은 고졸과 대졸이 각각 41명과 36명으로 45.1%와 39.6%로 가장 많았고 중졸과 초졸 이하는 8명과 6명으로 8.8%와 6.6%였다. 결혼상태는 초혼이 69명으로 75.8%를 차지하였고 재혼과 동거가 각각 17명과 5명으로 18.7%와 5.5%였다. 결혼 기간을 살펴보면 10년 미만인 34명, 10년~20년 미만인 29명, 20년 이상이 28명으로 각각 37.4%, 31.9%, 30.8%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IV-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91)

변 인	구 분	n(%)
성 별	남성	63(69.2)
	여성	28(30.8)
연 령	30대 이하	17(18.7)
	40대	36(39.6)
	50대	23(25.3)
	60대 이상	15(16.5)
학 력	초졸 이하	6(6.6)
	중졸	8(8.8)
	고졸	41(45.1)
	대졸 이상	36(39.6)
결혼상태	초혼	69(75.8)
	재혼	17(18.7)
	동거	5(5.5)
결혼 기간	10년 미만	34(37.4)
	10년~20년 미만	29(31.9)
	20년 이상	28(30.8)

2.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1) 프로그램의 효과성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IV-2>와 같이 부부갈등의 경우 t값은 3.117, $p < .01$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도 t값이 -2.204, $p < .05$ 수준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심리상태 또한 t값 2.193, $p < .05$ 수준으로 유의미했고, 결혼생활에서도 t값 -3.482, $p < .01$ 수준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능적 의사소통에서는 t값 -.775, $p > .05$ 수준으로 유의미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 중 부부갈등, 역기능적 의사소통, 심리상태, 그리고 결혼생활은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기능적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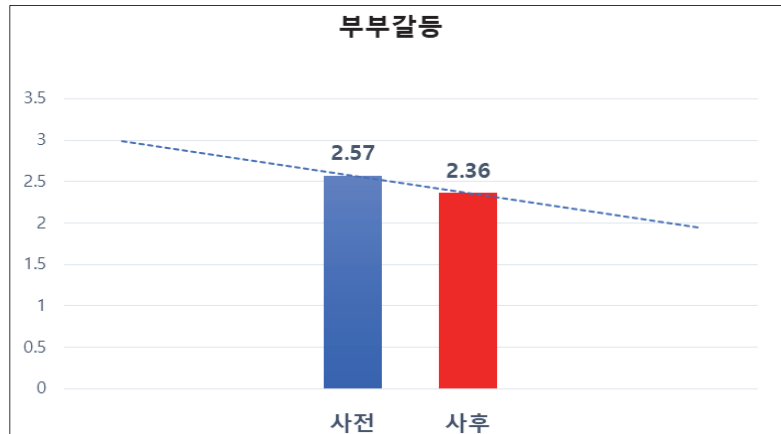
<표 IV-2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N=91)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M)	표준편차(SD)		
부부갈등	사전	91	2.57	.77	3.117(.002)**
	사후	91	2.36	.75	
기능적 의사소통	사전	91	3.21	.82	-.775(.440)
	사후	91	3.29	.85	
역기능적 의사소통	사전	91	2.36	.73	-2.204(.030)*
	사후	91	2.21	.75	
심리상태	사전	91	2.54	.89	2.193(.031)*
	사후	91	2.40	.87	
결혼생활	사전	91	3.33	.90	-3.482(.001)**
	사후	91	3.57	.82	

* $p < .05$, ** $p < .01$

(1) 부부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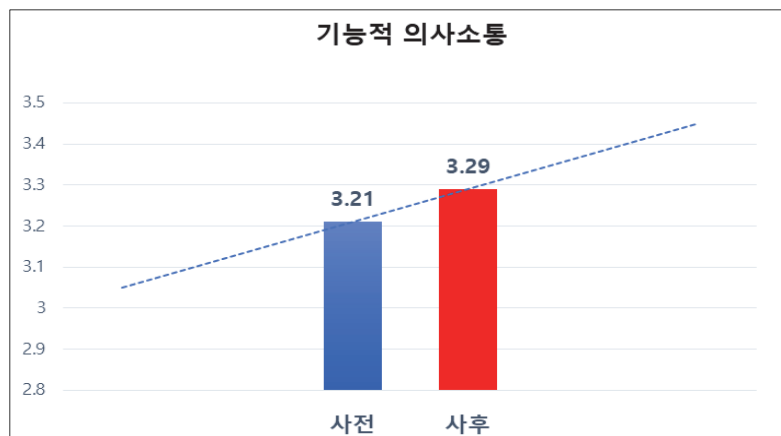
부부갈등은 점수가 낮아질수록 갈등 관계가 줄어든 것을 의미하는데 [그림 IV-1]과 같이 사전 평균 2.57에서 사후 평균 2.36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행위자들이 프로그램 참여 후 부부갈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 부부갈등의 사전·사후 변화

(2) 기능적 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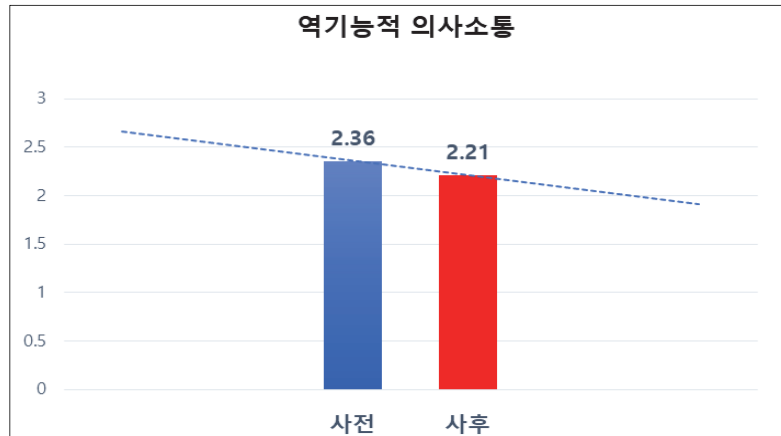
의사소통 중 기능적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아질수록 긍정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데 [그림 IV-2]와 같이 사전 평균 3.21에서 사후 평균 3.29로 평균 점수는 높아졌으나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행위자들이 프로그램 참가 후 기능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 기능적 의사소통의 사전·사후 변화

(3) 역기능적 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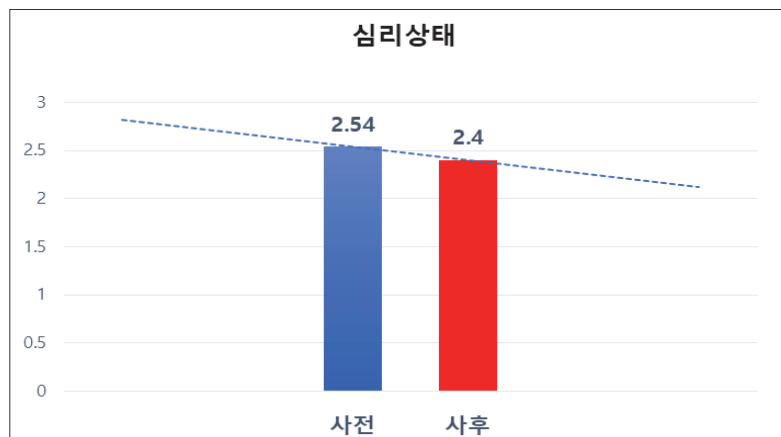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정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데 [그림 IV-3]과 같이 사전 평균 2.36에서 사후 평균 2.21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프로그램 참여 후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3]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사전·사후 변화

(4) 심리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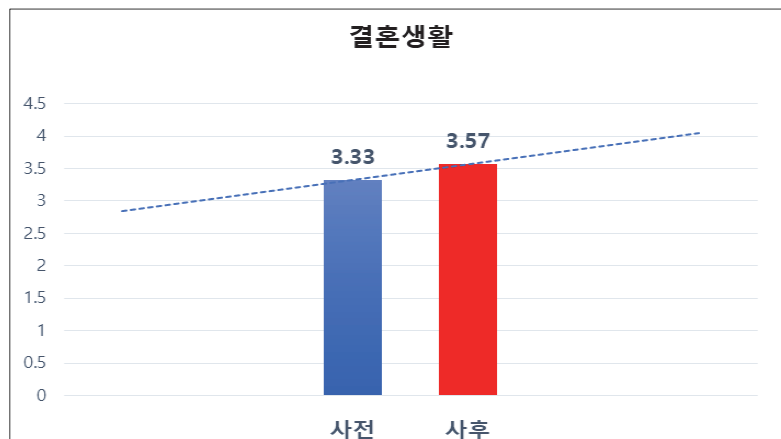
심리상태는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심리가 부정적(불안정적)임을 의미하는데 [그림 IV-4]와 같이 사전 평균 2.54에서 사후 평균 2.40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프로그램 참여 후 부정적인 심리상태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4] 심리상태의 사전·사후 변화

(5) 결혼생활

결혼생활은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는데 [그림 IV-5]와 같이 사전 평균 3.33에서 사후 평균 3.57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프로그램 참여 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5] 결혼생활의 사전·사후 변화

3. 가정폭력행위자의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의 영향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 전, 후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 <표 IV-4>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가정 중 회귀분석의 적합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계수와 D-W(Durbin-Watson) 계수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모든 회귀식의 VIF 계수는 1.005에서 1.631 범위로 5보다 작았으며, D-W 계수 또한 1.742에서 2.120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모든 회귀식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프로그램 참여 전 행위자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의 영향은 <표 IV-3>과 같다. 분석결과, 결혼생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부부갈등($\beta = -.332$)과 심리상태($\beta = -.327$)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기능적 의사소통($\beta = .297$)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34%이다. 즉, 부부갈등과 부정적인 심리상태 수준이 낮을수록, 기능적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의 영향(참여 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TOL	VIF
	B	SE	β			
(상수)	4.262	.642		6.637***		
부부갈등	-.387	.115	-.332	-3.364**	.750	1.334
기능적 의사소통	.326	.099	.297	3.302**	.902	1.108
약기능적 의사소통	-.042	.123	-.034	-.339	.724	1.382
심리상태	-.329	.103	-.327	-3.201**	.699	1.430
<i>F(p)</i>			12.808***			
adj. <i>R</i> ²			.344			
Durbin-Watson			2.120			

** $p < .01$, *** $p < .001$

반면, 프로그램 참여 후 행위자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의 영향은 <표 IV-4>와 같다. 분석결과, 결혼생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심리상태($\beta = -.405$)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부부갈등($\beta = -.283$)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34%이다. 즉, 부정적인 심리상태와 부부갈등의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행위자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면, 프로그램 참여 전의 경우는 부부갈등과 심리상태, 기능적 의사소통이 결혼생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반면,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부부갈등과 심리상태가 결혼생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기능적 의사소통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결혼생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반면,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모두 결혼생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 전 행위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신은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 후 자신의 소통방식에 대한 ‘자신의 헌신이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를 자각하며 기능적 의사소통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4>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의 영향(참여 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TOL	VIF
	B	SE	β			
(상수)	4.723	.718		6.580***		
부부갈등	-.307	.111	-.283	-2.759**	.699	1.430
기능적 의사소통	.164	.083	.170	1.973	.995	1.005
역기능적 의사소통	-.014	.116	-.013	-.121	.644	1.552
심리상태	-.380	.103	-.405	-3.700***	.613	1.631
$F(p)$				12.508***		
adj. R^2				.338		
Durbin-Watson				1.742		

** $p < .01$, *** $p < .001$

4. 성별에 따른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의 영향

성별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 전, 후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5>, <표 IV-6>과 같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가정 중 회귀분석의 적합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계수와 D-W(Durbin-Watson) 계수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모든 회귀식의 VIF 계수는 1.00에서 2.676의 범위로 5보다 작았으며, D-W 계수 또한 1.528에서 2.298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모든 회귀식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남성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 전,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의 영향은 <표 IV-5>와 같다. 분석결과, 결혼생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들 중 기능적 의사소통($\beta = .396$)과 심리상태($\beta = -.346$)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부부갈등($\beta = -.2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38%이다. 즉, 부정적인 심리상태가 낮고 기능적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으며,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프로그램 참여 전 행위자 남성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 결혼생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기능적 의사소통($\beta = 3.710$)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심리상태($\beta = -.382$)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47%이다. 즉, 기능적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고 부정적인 심리상태가 낮을수록, 프로그램 참여 후 행위자 남성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남성 가정폭력행위자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TOL	VIF	
		B	SE	β				
참여 전	(상수)	3.797	.722		5.261***			
	부부갈등	-.301	.127	-.284	-2.360*	.691	1.447	
	기능적 의사소통	.426	.118	.396	3.612**	.832	1.203	
	약기능적 의사소통	-.076	.143	-.068	-.532	.619	1.616	
	심리상태	-.310	.113	-.346	-2.740**	.627	1.595	
	$F(p)$				10.479***			
	adj. R^2				.379			
	Durbin-Watson				2.298			
	참여 후	(상수)	3.153	.707		4.461***		
		부부갈등	-.135	.126	-.139	-1.068	.501	1.998
기능적 의사소통		.285	.077	.347	3.710***	.975	1.026	
약기능적 의사소통		.145	.116	.153	1.246	.566	1.766	
심리상태		-.301	.119	-.382	-2.530*	.374	2.676	
$F(p)$					14.769***			
adj. R^2					.470			
Durbin-Watson					2.030			

* $p < .05$, ** $p < .01$, *** $p < .001$

여성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 전, 후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의 영향은 <표 IV-6>과 같다. 분석결과, 결혼생활에 유일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부부갈등($\beta = -.419$)이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26%이다. 즉,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프로그램 참여 전 행위자 여성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 결혼생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심리상태($\beta=-.505$)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부부갈등($\beta=-.483$)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27%이다. 즉, 부정적인 심리상태와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프로그램 참여 후 행위자 여성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여성 가정폭력행위자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TOL	VIF
		B	SE	β			
참 여 전	(상수)	4.977	1.339		3.716***		
	부부갈등	-.560	.243	-.419	-2.304*	.823	1.215
	가능적 의사소통	.225	.193	.200	1.167	.926	1.080
	약가능적 의사소통	-.005	.244	-.004	-.021	.847	1.180
	심리상태	-.361	.224	-.301	-1.609	.780	1.283
	$F(p)$				3.419*		
	adj. R^2				.264		
Durbin-Watson				1.528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TOL	VIF
		B	SE	β			
참 여 후	(상수)	7.229	1.574		4.593***		
	부부갈등	-.609	.252	-.483	-2.414*	.672	1.488
	가능적 의사소통	.098	.235	.077	.416	.777	1.288
	약가능적 의사소통	-.281	.258	-.214	-1.093	.704	1.421
	심리상태	-.619	.223	-.505	-2.782**	.816	1.225
	$F(p)$				3.550*		
	adj. R^2				.274		
Durbin-Watson				1.976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연구자는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가정폭력행위자들의 폭력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제주지역 관할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 91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10차례의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부갈등 및 의사소통, 심리상태, 결혼생활 척도를 사전·사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지방법원 제주지원에서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에 의한 수강명령 대상자로 J보호관찰소로부터 E상담소에 위탁된 2022년 수강명령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위탁 수강명령 대상자 중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분석대상은 91명이다. 프로그램 시작 전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참여자 동의서와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5일간 하루 8시간씩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40시간 교육 후 수강명령 대상자는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프로그램 제공 전과 후에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교정·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남성 63명으로 전체의 69.2%이고, 여성은 28명으로 전체의 30.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가정폭력 가해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폭력을 당한 아내가 배우자에게 맞대응하는 행동이 과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으로 수강명령을 받는 여성 대상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 또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여성 행위자 비율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40대~50대가 59명으로 전체의 6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른 가정보호사 권의 가정폭력행위자 중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대법원, 2016)는 집계와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의 가정폭력 범죄자의 연령에 대한 연구와도 일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늦은 결혼으로 인해 이 시기에 부부 문제 또는 자녀로 인한 문제, 주변 가족들과의 갈등, 가정경제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로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행위자의 학력이 고졸과 대졸이 79.3%로 강삼연(201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반면, 김원자(2010)와 전숙이(2017)의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학력이 중졸과 고졸이 많았다. 또한, 행위자들의 결혼형태는 초혼이 가장 많았고, 결혼기간은 기간에 따라 골고루 분포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양영재(2021)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둘째,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갈등과 심리상태, 결혼생활에서 행위자들이 프로그램 참여 후 부부갈등과 부정적 심리상태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의사소통 중 기능적 의사소통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평균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증가하였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프로그램 참여 후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 전 가정폭력행위자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 가정문제를 국가에서 개입한다는 부정적 인식 등으로 프로그램 참여 초기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에 대한 개념 및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깨달음, 부부갈등 상황에서 건장한 의사소통 대처방식 등에 대한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전의 경우 부부갈등과 심리상태, 기능적 의사소통이 결혼생활에 유의미한 영향력

을 보인 반면,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부부갈등과 심리상태가 결혼생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양영재(2021)의 선행연구결과에서도 모든 프로그램에서 대화법에 대하여 한 회기를 다루었으나 행위자의 가족문제해결 의사소통능력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하영과 주혜선(2017)이 국내 행위자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를 검토하면서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임의로 통합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엄격한 근거 기반의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정하영, 주혜선, 2017)고 제안하는 의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성별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갈등, 의사소통, 심리상태에 대한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참여 후 행위자 남성은 부정적인 심리상태가 낮고 기능적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부부갈등보다 의사소통이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위자 여성은 부정적인 심리상태와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의사소통보다 부부갈등이 결혼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생활에 대해 남성은 아내가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인정과 존중에 대한 욕구가 영향을 미치고, 여성은 남편과의 성격 차이, 생활양식, 가치관 등에 대해 자신과 일치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2. 제한점 및 제언

이 연구는 가정폭력의 보호처분으로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대상자 91명이 작성한 사전·사후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자는 제주지방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4호 수강명령을 받아 가정폭력상담소에 위탁된 대상자 중 일부 대상자를 제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것으로 전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이 연구는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 중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사별, 이혼, 미혼 등 다양한 대상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유형별 행위자들에 적합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4호 수강명령을 받은 단일집단으로만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비교집단이나 통제집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교육 종료 후 3개월 또는 6개월 후 추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매뉴얼의 수정·보완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비자발적 행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가정폭력 재범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비자발적 행위자 외에 자발적 참여자들에게도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 및 가정폭력처벌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삼연 (2013).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성 정도와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만족도.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신성 (2014). 노년기 부부갈등과 생태체계 요인이 황혼이혼 및 범죄유발 동기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은희 (2009).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집단상담이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행동,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석만 (200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경미 (2009). 부부의 성격특성과 갈등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환 (2017).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의사소통 행동과 부부간 신뢰의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만 (2010). 가정폭력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방지방안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자 (2010).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수강명령 대상자 중심으로.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김혜정, 박소현, 유숙영 (2014).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별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의진 (2014). 중년부부의 부부갈등, 여가경험, 결혼만족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주, 한성열. (1993).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복합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1), 28-36.
- 김정옥, 홍신례 (1987).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여성문제연구**, 15, 273-290.
- 김지영 (2004).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통합모형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영, 박성훈, 노성호, 이상원, 전은주, 김현정 (2016). **형사정책과 사업제도에 관한 평가(X)**.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재엽, 이서원 (2002). 한국 부부의 의사소통과 가정폭력 빈곤가구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아내폭력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33(3), 1-91.
- 김혜경, 도미향, 문혜숙, 박충선, 손홍숙, 오정옥, 홍달아기 (2010). ‘가족복지론’. 공동체.
- 노은여, 권정혜 (1997). 결혼생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기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2: 자아존중감의 변동성과 남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41-54.
- 대법원 (2016). **2016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 박경애 (2006).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위 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의 효과. 대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현 (2013). 가정폭력의 가부장성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소현 (2022). 결혼초기부부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조망수요의 매개효과: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 (2018). **2017년도 법무연감**.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서인원 (2015). 가정폭력 중복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진숙 (2018). 중년부부 갈등과 갈등대처방식 및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보미 (2005).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행위자 및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안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수진 (2017). 정서적·물리적 가정폭력의 발생과 신고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아영 (2007).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해자의 변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용주 (2021). 공감, 성인애착,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영재 (2021).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집단상담이 행위자의 통제행동, 가족 문제해결 의사소통, 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혜경, 유해선, 서보람 (2015).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부부갈등, 폭력, 분노, 의사소통, 자아인식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68(68), .39-66.
- 여성가족부 (2011).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 여성가족부 (2016).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 여성가족부 (2019).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 여성가족부 (2021). **2021년 상반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 여성가족부 (2022). **202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여성가족부 (2022). **2022년 여성폭력통계**.
- 오영주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결 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숙영 (2007).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36, 221-237.
- 유채영 (2002). 가정폭력행위자의 문제음주 변화동기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사회복지연구**, 제20호.
- 이건조 (2006).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관한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순 (2004). 가정폭력 행위자 부부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V. Satir 성장모델 이론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서원 (2003).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심 (2006).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진 (2021). **제주지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정책방향**.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장영순 (2014).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희숙, 명화숙, 이서원 (2003a).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I: 행위자 특성 등 조사·연구**. 여성부.
- 장희숙, 명화숙, 이서원 (2003b).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II: 실무자 매뉴얼**. 여성부.
- 장희숙, 허인영 (2018). 부부폭력 가해자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복지연구**, 49(4), 101-129.
- 전숙이 (2017). 가정폭력행위자의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숙이, 손철우 (2018).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
- 전영자 (1997).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심리적 결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35(1), 339-355.
- 조유리 (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유리, 김경신 (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광주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1.
- 차승은 (2005). 결혼 및 부모됨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채규만 (2002).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 **여성연구논총**, 3, 37-64,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한미경 (2010). 가정폭력 가해자의 수강명령경험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애 (2020). 중년부부의 마음챙김과 의사소통능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PIM)의 적용. 용문상담심리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영애, 양혜경 (2020). 중년부부의 마음챙김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매개효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PIM)의 적용. **가족과 가족치료**, 28(3), 405-425.

한태희 (2022). 코로나 장기화에 가정폭력 증가...접근금지 65% 급증.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211000410>.

Gelles, R. J. (1976). Abused wives: Why do they sta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8(4), 659 - 668.

HaYoung Jung, HyeSun Joo (2017). A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위기관리논집**, 13(6), 35-49.

Herrenkohl, R. C. (1981).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Social Work*, 26(4), 353.

Jennifer E. Peggy C. Monica A. Wendy D. (2020). The development of attitudes toward intimate partner violence: An examination of key correlates among a sample of young adults. *J Interpers Violence*, 34(7): 1357 - 1387.

경찰청: <http://www.police.go.kr>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국회도서관: <http://dl.nanet.go.kr/index>.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법제처: <http://www.law.go.kr>

북지타임즈: <http://www.bokjitime.com>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 <http://www.holine.or.kr>

ABSTRACT

The Effec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 'Correctional and Treatment Programs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s'

Hyun-Mee Kim

Major in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yeong-Seok Seo

Supervised by Professor Chong-Woo Kim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domestic violence programs for domestic violence actors.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he subject of the course order entrusted to the E counseling center from the J probation office in 2022. The program operator guided the 'correctional and treatment programs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s', and the 10th program was conducted in 2022.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 was provided with questionnaires from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e 2022 domestic violence offenders correctional

and treatment programs conducted by the E counseling center. Among the program participants, 91 subjects who took a 40-hour program and maintained marriage were selected. The measurement tools used in the study are a marital conflict scale, a communication scale, a psychological state scale, and a marital life scale. The study subjects filled out a pre- and post-questionnaire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respectively.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a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First,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Second, a response sample t-test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correctional and treatment programs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s'. Thi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communication, and psychological state on marital life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in the 'correctional and treatment programs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s'. Four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communication, and psychological state on marital life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in gender-based domestic violence offenders' correctional and treatment progra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rrectional and treatment programs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s' in pre- and post-mortem tests on marital conflict, communication, psychological state, and marital life.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it is expected that the basis for research data on the correction of violent behavior of domestic violence offenders can be prepared and applied in various ways to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and systematic programs.

Key words: 'correction and treatment programs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s', marital conflict, communication, psychological state, marital life

〈부록1〉

프로그램 사전·사후 설문지

1. 인적사항

이름	나이	결혼상태	초혼 / 재혼 / 동거
학력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결혼기간	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이상

2. 부부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부부관계는 아래의 각 문항들로 인하여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항목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비교적 심각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비교적 심각 하였다	매우 심각 하였다
1	성격 차이로 인한 문제					
2	생활양식(잠버릇, 식사습관, 위생관념 등)의 차이로 인한 문제					
3	생활철학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한 문제					
4	의사소통의 문제					
5	성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6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외도로 인한 문제					
7	애정이나 관심 부족의 문제					
8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9	직업과 관련된 문제					
10	자녀 문제					
11	친인척으로 인한 문제					

3.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읽고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번 이 호	항 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비 교 적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비 교 적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배우자에게 마음에 품고 있는 감정과 기분을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					
2	나는 배우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질문한다.					
3	나는 배우자가 이야기할 때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					
4	나는 배우자의 의견이나 기분을 존중한다.					
5	나는 배우자의 주장이 옳아도 내 주장을 고집한다.					
6	나는 배우자의 장점보다 단점을 꼬집는다.					
7	나는 배우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귀찮다.					
8	나는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다.					
9	나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배우자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4. 심리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읽고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번 호	항 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비 교 적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비 교 적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곤 한다.					
2	내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					
3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다.					
4	편안하게 잠을 자기 힘들 때가 있다.					
5	무슨 일을 하든 전념할 수 없다.					
6	모든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 죄의식을 느낀다.					
7	매사에 과민하게 반응한다.					
8	죽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9	식욕이 떨어진다.					
10	예전에 비해 말수가 줄었다.					

5. 결혼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읽고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번 이 호	항 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비 교 적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비 교 적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의 결혼생활은 다른 어떤 일보다 나 자신에게 만족감을 준다.					
2	나의 결혼생활은 행복하다.					
3	나의 결혼생활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4	나는 결혼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한다.					
5	나는 배우자를 신뢰하려고 노력한다.					
6	나는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부록2〉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

1일차 프로그램 진행내용

	시 간	프 로 그 램 진 행 내 용	비 고
1일차	10:00 ~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명: 개시교육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 인사를 통해 집단을 소개 -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목표를 정립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영인사 2. 진행자 소개 3. 프로그램 일정 및 규칙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참여시 약물복용금지(알코올, 마약 등) - 프로그램 진행중에 휴대폰 수신금지 -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지각, 조퇴, 결석 금지 - 프로그램 장을 떠나서는 구성원들의 비밀보장 등 	사전 설문지 작성
	11:00 ~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명: 관계형성 및 집단목표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소개 - 집단초기의 긴장을 완화하고 집단원 간의 친목 도모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리엔테이션, 별칭짓기 2.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은? 	ppt
	13: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명: 나는 누구일까요?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특성을 이해 - 타인의 특성을 이해 - 효율적인 인간관계를 개선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격유형 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니어그램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성격유형을 파악한다 2. 각 유형의 특성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가지 성격의 기본유형 특성을 이해한다 - 자신의 기본유형에 영향을 주는 날개와 분열, 통합을 이해한다 - 각 유형 들과의 효율적인 인간관계를 이해한다. 3. 소감 나누기 	ppt 에니어 그램 검사 도구

2일차 프로그램 진행내용

	시 간	프 로 그 램 진 행 내 용	비 고
2일차	10:00 ~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명: 가정폭력/아동폭력 개념 및 사건처리절차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아동폭력 정의 및 폭력의 유형 이해 - 가정폭력/아동폭력이 끼치는 영향 및 가정폭력의 편견에 대한 이해 - 가정폭력/아동폭력 관련 법에 대한 이해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폭력/아동폭력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해 봅시다1 : 사례공유 - 가정폭력/아동폭력이란 무엇일까요? 2. 가정폭력/아동폭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해 봅시다2 : 사례공유 - 가정폭력/아동폭력이 끼치는 영향 - 가정폭력/아동폭력의 현황 - 아직도 편견이?! - 가정폭력/아동폭력 사건처리 절차 - 가정폭력/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ppt
	13:00 ~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명: 자기탐색 I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의 다양성 이해 - 가족관계의 소통 형태를 확인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조지 작성 2. 구조지를 통한 그룹 활동 3. 소감나누기 	ppt 구조지
	15: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명: 자기탐색 II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나의 삶의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이해 - 균형있는 삶에 대한 이해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구조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한 구조지를 통한 집단 구성원들의 삶의 에너지 공유 2. '삶의 균형' 구조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 작성한 구조지를 통한 집단 구성원들의 삶의 균형 공유 3. '나의 역할 평가' 구조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한 구조지를 통한 집단 구성원들의 역할 공유 4. 소감 나누기 	ppt 구조지

3일차 프로그램 진행내용

	시 간	프 로 그 램 진 행 내 용	비 고
3일차	10:00 ~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명: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에 대한 이해 - 알코올이 미치는 영향 - 알코올과 폭력의 관계 이해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술이란 무엇인가? - 술의 긍정적인 효과 와 부정적인 효과 2. 알코올이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의 대사 경로 및 신체에 미치는 영향 3. 알코올과 폭력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과 여성, 술과 임신, 술과 범죄 4. 소감 나누기 	ppt
	13:00 ~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명: 자기탐색III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심리적 특성 이해 - 스트레스 관리방법 습득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간의 심리적 역동 설명 - 사례 등 2. 스트레지 일지 작성 및 관리 - 화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나누기 - 자신의 대처방식 인식 - 타임아웃, 적절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 나누기 3. 소감 나누기 	ppt 구조지
	15: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명: 의사소통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의 패턴과 전략 이해 - 의사소통 유형의 이해 -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한 5가지 행동 지침 알기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와 가족들과의 닮은점과 다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가족과 갈등상황을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구조지 작성 2. 의사소통의 패턴과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한 구조지를 통한 의사소통에서의 듣기 수준의 이해 - 대화의 전략 : 적절한 때·양·언어·방법 3. 의사소통 유형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건강한 의사소통 유형 : 비난형/ 회유형/ 초이성형/ 산만형 - 건강한 의사소통 유형 : 일치형 4.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한 5가지 행동 지침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관계에 필요한 5가지 요소를 이해 5. 소감 나누기 	ppt 구조지

4일차 프로그램 진행내용

	시 간	프 로 그 램 진 행 내 용	비 고
4일차	10:00 ~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명: 생애발달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역할 이해 -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는 기술 습득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달 단계에 따른 주요과업 및 부모의 역할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성장 과정을 탐색하고 이야기 나누기 - 자신의 부모 역할에 대해 탐색하고 이야기 나누기 2.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는 기술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 격려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해 	ppt
	13:00 ~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명: 부부관계 탐색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부부관계 이해 -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해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하지 못한 배우자들의 특징과 경험 이해 - 결혼생활에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영향 이해 - 사례를 통한 부부관계 이해 2. 가족안에서의 갈등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내면심리 및 대인관계 패턴 이해 3. 소감 나누기 	ppt 구조지
	15: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명: 생명존중(자살예방)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의 위험요인 및 특성 이해 - 사례를 통한 위기대처 방법 습득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살의 이해와 우리의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들의 상황 2. 자살의 위험요인 및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의 특성을 알고 위험요인 대처하기 3. 소중한 나와 마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들을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삶의 패턴 찾기 4. 위기대처 및 행복한 삶의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극복 사례를 통한 행복한 삶 5. 소감 나누기 	ppt

5일차 프로그램 진행내용

	시간	프 로 그 램 진 행 내 용	비 고
5일차	10:00 ~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명: 가정에서 시작되는 양성평등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이해 - 균형있는 성 역할의 이해를 통한 건강한 양육방법 습득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 가족 안에서 양성평등은 어떠한가? - 자신의 가족 내 사례를 통한 양성평등 이해 2. 우리가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면 평등해질까? - 성 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알기 3. 양성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모의 역할 4. 소감 나누기 	ppt
	13:00 ~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명: 가족영화상영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 및 세대 간 전이 이해 - 가족의 소중함 알기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 보기 2. 소감 나누기 	영상
	16: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명: 인생설계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삶 계획하기 - 계획한 미래의 삶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알기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조지 작성 - 작성한 구조지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고 구성원들과 나누기 - 미래의 삶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작성하고 나누기 2. 소감 나누기 	ppt 구조지
	17: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명: 종결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와 평가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표 달성여부에 대해 나누기 - 프로그램 전과 지금의 차이점 나누기 2. 프로그램 사후검사 실시 - 사후설문지 작성 3. 마무리 소감 나누기 	사후 설문지 작성